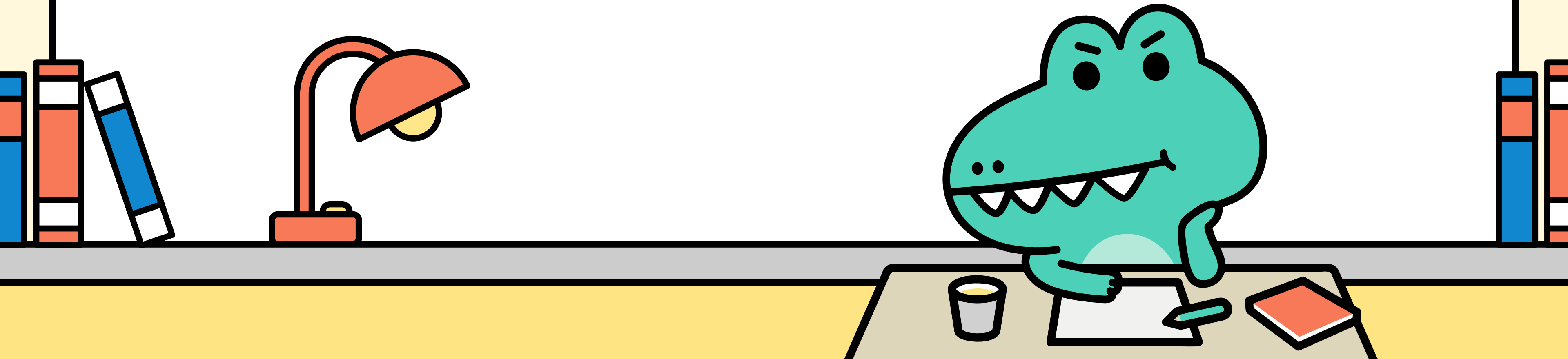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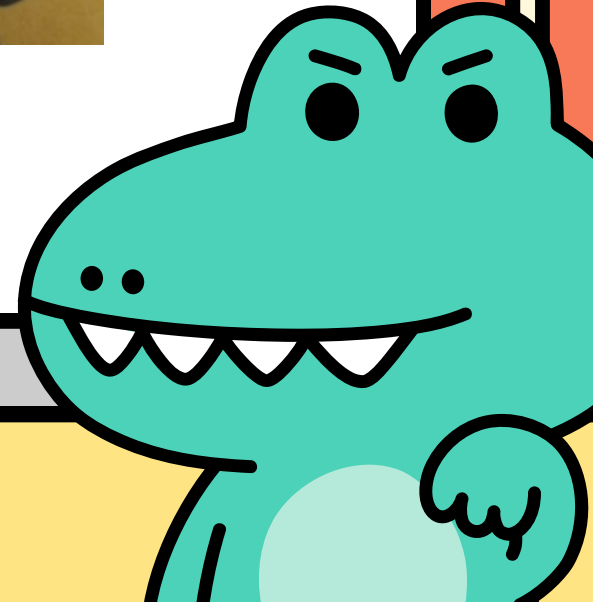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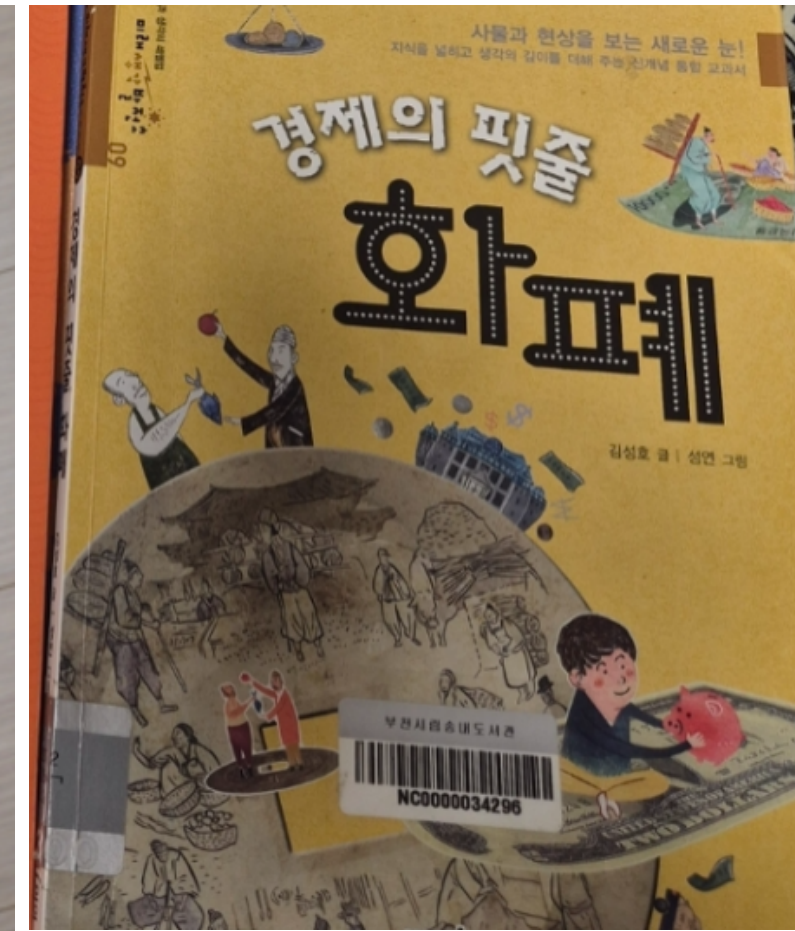
GROUP BOOKiT 2기

“꼬꼬마원정대2조”

조한별 / 조민준 / 강대엘 / 강다원



활동 연계 도서



가정에서 북키트 활용



아이들과 함께 시장 놀이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 미래엔 아이세움에서 나온 《시장》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책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시장을 찾아보는 방법과 시장의 여러 종류를 알 수 있었는데, 특히 “물건을 하나만 팔아도 시장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요구르트를 파는 작은 전동차도 시장이라는 설명은 저에게도 무척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가게가 여럿 모여 있어야만 시장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짧은 고정관념이 바뀌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즘은 통신판매도 하나의 시장이구나” 하는 사실도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작은 시장, 전문 시장, 종합 시장, 통신 판매 시장 등 다양한 시장의 개념을 함께 이야기하며 배워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북키트 활용



독서 활동지를 작성하면서 아이와 함께 내용 예측을 해보고,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보는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활동지 속 QR코드로 연결된 영상을 시청한 뒤, 준비된 재료들을 종합시장 진열장처럼 코너별로 나누어 진열하고, 직접 쇼핑카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아이와 함께 쇼핑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꼭 필요한 재료와 있으면 좋은 재료를 구분하여 적고, 실제로 쇼핑을 해보듯 영수증까지 작성해 보니 자연스럽게 쇼핑의 과정과 돈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위조지폐가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질문으로 확장되며, 돈의 가치와 신뢰의 중요성까지 나눠볼 수 있던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북키트 활용 연계 모임활동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GROUP BOOKit 키트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한 후, 드디어 꼬꼬마 원정대 1조와 2조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아이들과 아버님들이 함께 모여, 집에서 수업하며 느꼈던 점과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아이들과 아버님들께서는 “이런 방식의 수업이 참 좋았다”며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책을 다시 읽으며 키트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놀면서 배우는 금융 교육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모두가 웃고 이야기하며 참여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가족과 함께 배우고 나누는 이 시간은,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따뜻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북키트 활용 활동 소감

한별

시장에 갔을 때 어떤 날은 물건이 비싸지고, 어떤 날은 싸진다는 게 신기했어요

민준

내가 좋아하는 과자가 갑자기 비싸지면 어떡하지?

다엘

싸다고 아무거나 많이 사면 나중에 돈이 금방 없어지는 걸 배웠어요.

다원

내가 주인처럼 물건을 고르니까 재미있었어요.

책과 활동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아이가 돈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용돈이 단순히 '받고 쓰는 돈'이 아니라 '계획하고 조절하는 것'이라는 점을 배우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장보기 활동을 하며 평소에 지나치던 물건의 가격이나 소비 습관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교육이라기보다 놀이처럼 즐기며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제라는 주제가 다소 어렵게 느껴졌지만, 아이 눈높이에 맞춘 책과 키트 덕분에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었고, 가정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 유익했습니다. 책으로 배우고 실제로 활동하면서 아이가 '왜 아껴 써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닫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고, 이런 체험형 경제교육이 앞으로도 자주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